

승리절은 온 우주에 가득찬 마귀를 이기신 승리의 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1980년 10월 15일자로 ‘이긴자’가 되어 사망의 세상을 죽지 않는 불사의 세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사람 속에 있는 마귀를 죽이고 그를 점령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온 우주의 마귀를 이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사람 속에서 완성될 때에 그가 바로 구세주이신 바 지금 완성의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인공이 되셔서

인간 조희성의 몸을 배처럼 타고 역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승리절을 기해서 한 사람이 이긴 것으로 하여

여러분들이 ‘다 이겼다’가 되었으며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지난 날에 지은 모든 죄를 사한다’는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범죄만 하지 않으면 ‘영생’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긴자가 된 이 사람이 죽지 않는 비결의 확신을 이해하기 쉽게 논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간단하며 영원불변의 말씀입니다.

마음먹는 대로 피가 변합니다

경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풀이라, 불심을 풀이라’고 써어 있는데, 오늘날 경전을 안다는 사람들이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먹는 대로 피가 변하고, 마음에 따라 몸이 변합니다. 사람의 생긴 모습은 그의 마음이 만들어 낸 모습입니다. 각쟁이처럼 생긴 사람은 각쟁이고 악하게 생긴 사람은 악한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어린 아이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풀으면 하나님의 피로 변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되고, 마침내 안 죽는 몸으로 화하는 것이 바로 불사설(不死說)입니다.

미국의 세포화학자인 파울링 리누스 박사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세포의 수명이 수 년에서 몇 시간까지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어떤 세포든 죽으면 그 즉시 건강한 세포로 새로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즉, 학술적으로 보아서 인간은 죽을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신도 죽는 원인을 물었습니다. 죽을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피가 썩어 죽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재미교도 이상구 박사는 ‘사람이 즐거워하고 사랑하면 엔돌핀이 나와서 T인 파구가 조성되어 풀어지고 병도 낫는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나(我相)라는 의식이 기뻐해서

엔돌핀이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영인 ‘나의 의식’이 기뻐해서 엔돌핀이 나오지 않습니다. 엔돌핀은 생명의 물질이므로 생명이 되는 양심의 영이 기뻐할 때에 비로소 나오는 것입니다.

갑나무에 감이 열리지 풀이 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핏속에서 엔돌핀이 나오는 것이 마귀의 핏속에서는 엔돌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좋아하는 희생적인 마음, 양심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 악한 사람을 도와 줄 때, 마음이 뿌듯해지면서 기쁨이 나오는데 그때에 핏속에서 엔돌핀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마음을 계속 품으면 엔돌핀이 면역성이 강한 물질로 변합니다. 이로써 죽이는 물질, 썩히는 물질을 제거하므로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 때문에 모든 만물이 썩고 죽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이 다 신(神)인데 마귀의 신과 하나님의 신이 병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간헐적이고 마귀의 신이 하나님의 신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 이 세상 만물입니다. 공기 자체도 마귀의 영이 하나님의 신을 사로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귀의 영 때문에 모든 만물이 썩고 죽는 것이므로 마귀의 영만 제거되면 죽지 않습니다.

죽는 사람은 모두 자기 자신의 생명을 포기합니다. “나는 이제 죽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며 죽는 것입니다.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의사가 포기해도 자



구세주 조희성님

신이 포기하지 않으면 병도 낫고 죽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것을 많이 보았으므로 사람이 죽고 안 죽는 것은 자기 마음에 달렸다는 것을 일찍이 터득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오름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듯이 아플 때가 있고 안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에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면 그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상전으로 여기는 것이 영생하는 비결이고 젊어지는 비결입니다

어린 아이도 어른처럼 여기면서 내가 제일 아랫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생활하면 젊어집니다.

밀실에서 언단발을 때, 이 사람이 두 번째로 나이가 많았지만 그곳의 젊은 청년들이 이 사람을 마구 부러 먹었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잘 들으니까 일을 마구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 뻔 되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은 내 상전이요, 내 하나님으로 생각하여 무조건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험난하니 험난한 ‘영생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에서나 사회에서나 자기가 제일 웃어른이라고 목에 힘을 주고 있으면 그것은 초초로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집안에서 종노릇을 하고 가장 아랫 사람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생하는 비결이요, 젊어지는 비결입니다.

이제 그대로 자존심이 선악과요, ‘나’라는 의식이 사망의 신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빨리 죽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상대방을 하나님처럼 여겨야 합니다. 부부기간에도 부인은 남편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순종을 해야 하고 남편도 역시 부인이 상전이요, 하나님이므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피가 맑아지고 새로워지면서 젊어지고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하나님처럼 여겨라>는 말씀이 바로 영생학의 골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내 스승처럼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은 경허한 신이므로

로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의 생각에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만나는 사람들도 기본이 좋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는 중심을 가지고 시간시간을 보내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 없이는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되어야 천당에 가고 영생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온 우주에 차있는 마귀를 이기신 승리의 날입니다. 이 사람은 1980년도 10월 15일자로 이긴자가 되어 사망의 세상을 죽지 않는 불사의 세상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구세주가 되셔서 이기셨습니다. 한 사람 속에 있는 마귀를 죽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점령한 바, 한 사람을 이겼다는 것은 온 인류를 이긴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사람 속에서 완성될 때에 그가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완성의 하나님에게 점령 당하는 사람이 구세주의 그릇입니다. 완성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서 조희성의 몸을 배처럼 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승리절을 기해서 한 사람이 이긴 것으로 하여 여러분들이 ‘다 이겼다’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난 날에 지은 모든 죄를 사한다’는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범죄만 하지 않으면 ‘영생’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1993년 10월 15일 말씀 중에서



하나님 뜻을 못 이룬다면 살아서 나가지 않으리라

죄를 이기기 위해 하나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면서 추후도 생각을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집중에 집중을 가했다

세상에 ‘좋아하는 것도 음란죄’가 된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나로서는 더 이상 이 길을 갈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나도 괴롭혀드려 죄송하고 송구스런 마음으로 몸 둘 바를 몰랐는데 이제 또, 좋아하는 음란죄에 걸려서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저드렸으니 이럴 바에야 저는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하면서 죽을 각오를 하게 되었다. 그동안 살아온 가시밭 인생길이 생각나면서 슬픔이 북받쳐 올라왔다.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죽을 것을 생각을 하니 너무나 기가 차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이었다. 그 슬픔은 어디에도 견줄 수 없었다.

처음 밀실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밀실에 들어와 마지막 언단을 받게 됨으로 여기서 이긴자가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귀도 새도 모르게 죽으면 죽었지 살아서 나가지 않을 것이다.’ 하고 굳은 결심을 한 바 있었다.

하나 둘 밀실 식구가 다 들어가고 날이 어스푸레 어두어지기 시작할 즈음 천 근 만 근 된 몸을 이끌고 속소로 들어왔다. 문을 걸어 잠그고 울면서 목을 매달 끈을 여기저기 찾고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영모님께서 나타나셔서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성급하게 왜 그러는 거야?” 하시며 이 사람 두 손을 꼭 붙들고 커다란 몸을 들썩이며 너무도 슬피 우시는 것이었다. 이 사람도 같이 흐느껴 울면서 “죄송합니다. 또 하나님을 이렇게 괴롭혀드렸군요. 이 몸과 생명 전체를 모두 하나님께 맡겼으니 죽는 것도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는데 죽으려고 했으니 내가 또 죽을죄를 지었군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하고 목을 놓고 한참을 울며 죽을 마음을 고쳐먹고 참고 견뎌보겠다고 결심하고 고개를 들어보니 영모님은 온 데 간 데 없었습니다. 방안에 이 사람 혼자 있는 것이었다. 영모님이 문을 열고 나가셨나 하고 어안이 병병하여 문을 보니 문고리는 그냥 걸린 채로 있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는 음란죄로 떨어진 후 삶을 포기하고 밀실 앞 아카시아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으려고 했다

다급하셨으면 영모님의 모습을 하고 와서 이 사람의 죽을 마음을 돌이키고 사라지신 것을 생각하니 너무 황송하여 몸 둘 바를 몰랐다.

또 다시 깨달은 것은 이 몸도 이 생명의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소유라

는 것을 질실히 깨닫게 되었다. 다시 이를 악물고 결연한 각오와 의지로 죄와 상관없는 투쟁에 돌입했다. 하나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면서 추후도 생각을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집중에 집중을 가했다. ‘좋아하는

음란죄’에 걸려 넘어진 것이 3월 하순 경이었는데, 그때부터 전도하러 가지도 못하고 나를 짓어가는 연단을 더한층 계속하게 되었다.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여

밀실에서는 개간된 농지가 많이 있었고, 계속해서 개간을 해나가고 있었다. 또한 포도 농사와 함께 밭농사도 많이 하였다. 이 사람은 가을이 되면 김포공항 가는 방향의, 십정동에 있는 나병환자촌에 가서 닭똥을 몇 트럭씩 사서 밀실 앞에도 부려 놓고 포도밭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지게에다 바스쿠리를 차려서 닭똥을 짚어지고 경사진 산 언덕을 넘어 포도밭까지 운반을 하였다. 그러면 온 몸이 닭똥 냄새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냄새와 끈적거림으로 말이 아니었지만 끝까지 단연히 죄인은 고통을 당해도 싸다는 심정으로 일을 책임 완수했다. 봄이 되면 포도나무의 껍질을 벗겨내고, 손을 치는 등, 밭 손질도 하였다.

포도농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예수가 자신을 가리켜 ‘포도나무’라 했는데, 포도나무가 뱀이나 구렁이같이 구불구불하게 생긴 것이 예수교의 음란함과 간악함을 은유하는 옛 뱀이요 붉은용임을 간접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가 그런 말은 바로 했구나!’ 하는 생각도 하였다.

언젠가 비가 많이 와서 마을 방천(防川)이 무너져서 수해가 난 후에 이 사람 혼자서 며칠을 걸려 큰 돌을 운반해서 그 돌을 다시 튼튼히 쌓아서 정상으로 만들어 놓고, 도로 보수도 하였다. 땅의 소유권자가 누구인가 간에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사람들이 다나기에 불편한 것 같이 자발적으로 복구를 해놓았다. 하루는 관할 행정 공무원이 이 사람을 찾아와 인적사항을 묻기에, 왜 그러시냐고 하니 표창을 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표창은 무슨 표창이냐며 단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하여 극구 만류하여 인적사항을 가르쳐 주지 않고 돌려보냈던 적도 있었다.*